필라델피아 한인천주교회

Holy Angels Parish of Archdiocese of Philadelphia
www.philaholyangels.org

7000 Old York Road, Philadelphia, PA 19126 • 사무실 (215) 927-1662 • FAX (215) 224-6615
주임 신부 : 정대웅(요한보스코) • 보좌 신부 : 김찬미(가비노)
사목회장 : 서영찬(프란치스코) 267-471-9048 • 연령회장 : 하동한(아오스딩) 267-616-8899

Mass		성사 · 면담	
Weekday	PM 8:00 (Tuesday · Thursday)	유 아 세 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7:00
Saturday	PM 8:00	축성 (차량, 집)	항 시 가 능
Sunday	AM 7:00, 10:00(교중)	고 백 성 사	미사 시작 전 20분
	AM 11:30 (Sunday School Vacation until Jan. 26)	혼 인 면 담	3개월 전 사무실로 신청
	PM 5:00 (청년 미사)	신 앙 상 담	항 시 가 능

오늘의 전례

입당 성가 : 130 예수 부활하셨네

제 1독서 : 사도행전 10,34ㄱ.37ㄴ-43

화 답 송 :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부 속 가 :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제 2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3,1-4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복 음 : 요한 20,1-9

봉헌 성가 : 134 거룩하다 부활이여

영성체송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성체 성가 : 138 만왕의 왕

파견 성가 : 83 주 찬미하라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밤(날,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 부활 감사송 1 <파스카의 신비> -

생명의 말씀

비움의 부활 체험

'부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잠깐 눈 감고 떠오르는 것들이 뭔지 보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봄, 병아리, 부활달걀, 토끼, 개나리, 노란색, 부활초 등 뭔가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고 꽉 차 있는 이미지들이 눈에 선합니다.

왠지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 근처에 갔을 때 무덤 문을 박차고 예수님이 '짜자~ㄴ' 하고 위풍당당하게 등장하셔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부활 이미지! 음?! 그건 아무래도 슈퍼맨의 이미지 아니냐고요? 그러고 보니, 그런것 같기도 하네요…. 진심을 털어놓자면, 마리아 막달레나와 베드로와 요한이 체험한 '부활 체험', 곧 '빈 무덤 체험'은 저에게는 어쩐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영광으로 꽉 차고 넘쳐야 할 '부활 체험'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텅 비어 있는 모습에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빈 무덤을 보고 곧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는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달려간 마리아 막달레나, 또 빈 무덤을 들여다보고는 즉시 주님의 부활을 믿은 요한과 베드로! 이들은 과연 빈 무덤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본 것을 저는 왜 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문득 이번 사순 시기의 첫날인 재의 수요일 복음 말씀이 떠오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마태 6,1) 그러면서 자선, 기도 및 단식에 힘써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남들한테 드러나지 않게 자선이나 기도나 단식을 실천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단식에 대해서 성찰해 보자면,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참으로 유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 주고, …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이사 58장 참조) 단식은 단순히 굶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기도를 해야 하는데,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이나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보일리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빈 무덤'은 온갖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비워진 우리의 내면을 나타냅니다. 부디 이번 부활절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온갖 욕심과 집착들로부터 해방된 우리 '빈 무덤'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신희준 루도비코 신부
양천성당 주임 겸 제18양천지구장

♡ 금주의 영명 축일자 – 축하합니다!

4월 13일	**이다** : 이선자
4월 14일	**리드비나** : 주혜경
4월 16일	**벨다뎃다** : 이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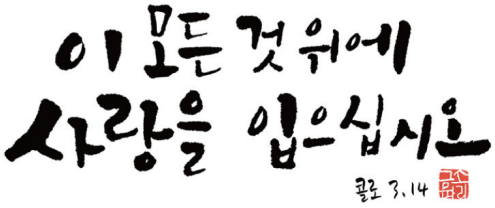
■ 우리들의 정성

감사헌금 익명 $300.-
교무금 $405.- 배경수 (4) 이영호(4-6)

∽ 미사 지향 ∽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오전 10시	연	백영기(안드레아)	가족	영원한 안식
		박재철 김창세(요한)	윤영숙	
		김정용(레안데르)	가족들	
	생	이준영(멜키올)	가족	건강 회복 주님 은총 축복
		임성택(베드로)	임종민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이배은 그라시아
쑥고개성당

2020년 부활 메시지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좋은 계절에 우리는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의 봄은 아직 멀리 있고 부활의 기쁨을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작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의 먹구름이 온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투신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갈망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인내와 희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민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미사의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피치 못할 가슴 아픈 결정이었습니다. 미사를 봉헌하지 못하고 성체도 영하지 못하는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신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홀로 미사를 지내며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써주시는 신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신자와 함께하는 미사 중단이 길어지면서 영적인 고통이 커갔지만, 그 고통안에는 축복도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들은 사제를 그리워하고, 사제들은 신자들을 더욱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라났습니다. 이 마음이 계속되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이 깊어지고 일상이 은총임을 깊이 깨달아 우리 신앙 공동체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창세 2,17; 3,3.19). 죄의 결과인 죽음은 인간에게 "영원한 소멸의 공포"(사목헌장 18항)를 안겨 줍니다. 모든 것을 무(無)로 되돌려놓는 죽음 앞에서 사람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을 운명에 처하여 두려움과 절망의 굴레에 갇힌 인간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부활로써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굳건히 믿고 충실히 따르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이 약속을 믿고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로마 7,24-25)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약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넘어선 희망을 선사해 주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주님은 빛이 충만한 시간만이 아니라 어둠이 가득한 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루카복음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어둠의 시간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여 길을 가던제자들에게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시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이끌어 주십니다(루카 24,13-35).

현재 우리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이 날지 몰라 많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를 곁에서 동행하십니다. 그분께 우리를 맡기면 두려움을 이기고 희망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지난 3월 27일 '인류를 위한 특별 기도와 축복' 예식에서 주님께 의탁하여 두려움을 이겨내자고 다음과 같이 호소하셨습니다. "옛적의 뱃사람들에게 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십시다! 우리 두려움을 주님께 넘겨드려, 그분께서 이기시게 합시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분과 함께 배에 있으면 난파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마르 4,35-41). 하느님의 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악한 일들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돌풍 속에 고요를 가져다주십니다. 하느님과 함께라면 생명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아울러 그분은 우리가 서로에게, 특히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가장 먼저 약하고 가난한 이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교황님께서도 코로나19로 "격리된 사람, 독거노인, 병원에 입원한 사람, 봉급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모르는 부모 등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이미 본당, 기관, 단체, 수도회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도움의 손길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대축일 며칠 후에 제21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될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들, 무엇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엄중해도 작은 희망이라도 보이면 견뎌낼 힘을 얻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의 삶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펴가는 데에 우리 모두 마음과 힘을 합치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곁에 머물도록 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28,5.10)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희망을 간직하고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서로를 배려와 사랑으로 대하면서 이 시련의 시간을 잘 견디어 나아갑시다. 불안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시도록 전구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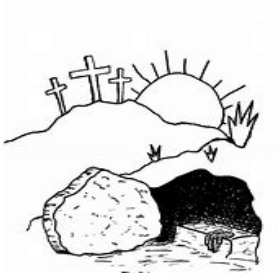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하느님께 바치는 교무금 납부는 가장 먼저, 제 달에, 기쁘게 봉헌합시다!

알렐루야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오며 본당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의 풍성한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임신부 정대웅 요한보스코
보좌신부 김찬미 가비노
사목회장 서영찬 프란치스코

♡필라델피아 대주교님 Nelson J. Perez 공지 사항입니다

필라델피아 교구 내 모든 성당은 평일, 주일 모든 미사는 추후 다시 공지가 있을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성당에서 미사는 없지만 매 주일 오전 11시 live streaming broad cast (라이브 방송)으로 대주교님이 미사를 집전하십니다
필라 교구 웹사이트 http ://archphila.org covid 19/나 Archbishop Perez's Facebook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분들께서는 코로나 19 극복을 청하는 기도와 묵주 기도를 각자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모으기 안내

한아름과 식당 영수증은 성당에 미사가 없는 관계로 당분간 날짜에 관계없이 모아서 성당 입구에 있는 영수증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씨 : 물건 구입시 성당 번호 "89020"이나 "**성당**"이라고 말하면 영수증에 대한 수익금이 성당으로 적립됩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식당 영수증 모으기 안내

본가 , 서라벌, 토담골, 뮤타, 코리아 가든, 코리안 바베큐, 상하이, 코코카페, 종가집, 고향산천, 5가 파리 제과, 고기 BBQ(옛한촌), 수라, 소 코리안 그릴(옛힐링포차) 꽁트 헤어 살롱 영수증의 3% 수익이 됩니다.
* 위의 식당 명단에 이름이 없는 곳은 영수증 수익금을 주지 않습니다

정영자 치과
☎ (215)635-0570
335. W. Cheltenham Ave
Melrose Park, PA 19027

경희 한의원
545 N. Bethlehem Pike
Lower Gwynedd PA 19002
(Tel) 215-224-2070
www.kyungheepa.com

Conte Hair(꽁뜨 헤어)
981 North Wales Rd
North Wales PA 19454
(Tel) 267-592-2484
www. Contehair.com (온라인 예약)

김홍길
회계사무소
(215) 635-7536

김승원 카이로프랙틱 척추신경의료원
Ambler
(215)641-9808
Cheltenham
(215)276-1976

찰리김 종합보험
비지니스, 차, 집, 생명보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215)935-6969
http://www.charliekiminsurance.com

본가 한국 전통 음식
(Tel) 267-645-3552 (아씨 맞은편)
구역회, 단체 모임 환영

윤상원 치과
치아 이식 수술 및 보철
(610) 356-9424
카톡 아이디 – simonyoondmd

공항 라이드 픽업
(필라, 뉴왁, 뉴욕 해결 해드립니다)
이사하거나 가게 닫으실 분(도우미)
물건 도네이션 Free Pick up
자동차 2014 니산, 센추라 SV, 포드밴,
다지벤판매
New Vision Youth 267.266.5092

장우군 CPA 공인회계사
(215)635-6463
wchangcpa@gmail.com

그레이스 김 보험
오바마 케어
메디 케어
610–275–6321

이 난에 광고를 원하시는 사업체는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장례에 관한 모든것
김기호 예의원
KIM FUNERAL HOME
215.424.0404

State Farm
비비안 리 종합보험
(215) 628-4323

공인회계사 CPA
박희중, 고현우
(215) 782 - 2121

빅센트릭 가전제품
창고판매 => 시간, $$ 최대 절감
(김치)냉장고, 세탁기, 오븐, – –
무료배달, 판매세 없음, 무이자 할부
443.250.8094/sales@BigCentric.com
151 Edgemoor Rd, Wilmington, DE